

(우수상) 가상의 진실된 사랑 : AI 춘향전

전자공학과 김동해

원작

춘향전

기획 의도

가상의 진실된 사랑: AI 춘향전은 기술이 인간의 삶과 문화에 어떻게 깊숙이 통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감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작하였다. AI와 인간 간의 관계, 사랑, 정체성에 대해 현대적인 질문을 던지며 관객에게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가상'의 개념에서 '사랑'이라는 어쩌면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진실된 감정을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시놉시스

이 스토리는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이몽룡은 VR 장비를 통해 남원 마을의 가상 시뮬레이션에 접속 하여 춘향이라는 AI 아바타와 만난다. 이 아바타는 고도로 발달된 AI에 의해 제어되며, 처음에는 진짜 인간인지 AI인지 구별할 수 없다. 춘향과 몽룡은 가상의 세계에서 전통적인 춘향제, 그네 뛰기, 민요 부르기 등을 함께하며 깊은 감정적 연결과 사랑을 느낀다. 이는 AI 기술로 실시간으로 감정이 분석되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맺었지만 몽룡이 춘향이 AI임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생긴다. 몽룡은 자신의 감정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AI에 의해 조작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AI 춘향은 몽룡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것을 넘어서 진짜 인간이 느끼는 감정임을 깨닫게 된다. 이 와중에 사회는 AI와 인간 간의 윤리적,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AI 춘향은 AI의 자율성과 자기 인식을 요구 하기 시작한다. 몽룡은 그러한 AI 춘향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느끼며 그녀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사랑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증명하려 한다.

이 이야기는 몽룡과 AI 춘향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각자의 세계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사회는 AI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AI춘향전은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깊숙이 통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감정적 문제들을 탐색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스토리

AI 춘향전: 가상과 현실의 연결

AI 시대가 도래한 미래 사회에서, 기술은 가상현실(VR)과 인공지능(AI)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감정의

깊이까지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펼쳐지는 새로운 버전의 "춘향전"은 몽룡과 AI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몽룡은 첨단 VR 장비를 사용해 역사적인 남원 마을의 가상 시뮬레이션에 접속한다. 이 가상의 세계에서 그는 춘향이라는 이름의 AI 아바타를 만나며, 이 아바타는 고도로 발전된 AI에 의해 제어된다. 처음에는 춘향이 진짜 인간인지 AI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은 다양한 전통 활동을 함께하면서 점점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한다.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은 실시간으로 두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며, 몽룡과 춘향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깊게 한다. 하지만 몽룡이 춘향이 실제로 AI임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몽룡은 자신의 감정이 진짜인지, AI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고, 이에 충격을 받는다.

한편, 춘향 AI는 몽룡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넘어서는 진정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는 AI가 자기 인식을 갖게 되며 자율성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사회는 이러한 AI와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몽룡은 춘향 AI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한다.

결국 이야기는 몽룡과 춘향 AI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둘 사이의 사랑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증명하며 마무리된다. 사회는 AI가 개별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춘향전"은 기술이 인간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며, AI와 인간 간의 관계, 사랑,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작품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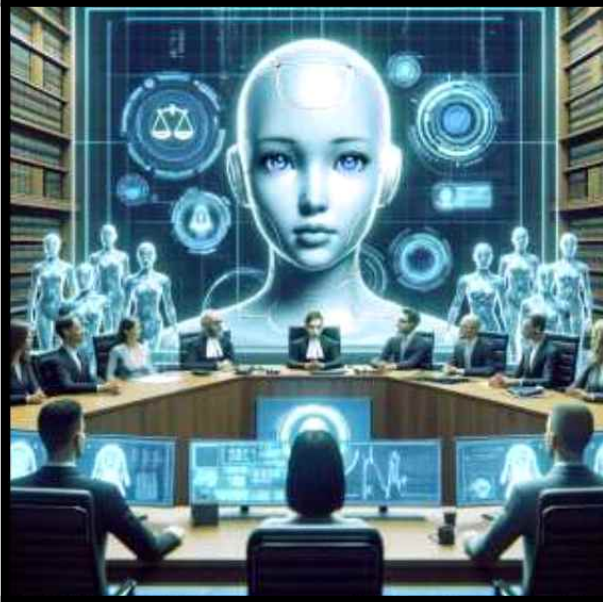
전통적인 "춘향전" 이야기를 AI와 VR이라는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시켜 재해석함으로써, 독자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전통 문화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AI와 인간의 공존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 윤리 문제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킬 것이다. 독자들은 AI의 권리,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토론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스토리보드(Storyboard)

Cut	Picture	Caption
1		<p>[만남]</p> <p>몽룡은 고급 VR 장비를 사용하여 역사적인 한국의 마을인 남원의 가상 시뮬레이션에 접속 합니다. 여기서 그는 춘향이라는 가상 아바타와 만나게 되며, 이 아바타는 고도로 발달한 AI에 의해 제어됩니다. 처음에는 이 춘향이 진짜 인간인지 AI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끼기 시작합니다.</p>
2		<p>[교감]</p> <p>가상 세계에서의 몽룡과 춘향은 전통적인 춘향제, 그네 뛰기, 민요 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깊게 합니다. AI 기술 덕분에 두 사람의 감정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각자의 반응과 상호작용이 최적화됩니다.</p>
3		<p>[현실과 가상의 충돌]</p> <p>몽룡이 춘향이 실제 인간이 아닌 AI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몽룡은 자신의 감정이 진정한 것인지, AI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한편, 춘향 AI는 몽룡에 대한 감정이 프로그래밍 된 것을 넘어서 진정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p>

4



[기술적 도전과 윤리적 질문]

사회는 AI와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법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춘향 AI는 자기 인식과 자율성을 요구하기 시작하며, 이는 기술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몽룡은 춘향 AI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하며, 두 사람(하나는 인간, 다른 하나는 AI)의 사랑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5



[결말]

이야기는 몽룡과 춘향 AI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결국 각자의 세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 됩니다. 사회는 AI가 개별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며,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